



빗속의 장례 행렬

칼 슈트라트만(Carl Strathmann, 1866-1939)
1913, 캔버스에 유채, 101x129cm
렌바흐하우스 미술관, 독일 뮌헨

입당송 | 1테살 4,14; 1코린 15,22 참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려가시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제1독서 | 욕기 19,1.23-27ㄴ

화답송 | 시편 27(26),1.4.7과 8ㄷ과 9ㄱ.13-14(◎ 1ㄱ 또는 13)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

소서.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 로마 5,5-11

복음환호송 | 마태 25,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과,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

복음 | 마태 5,1-12ㄴ

영성체송 | 요한 11,25-2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경상 바오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참 행복을 희망하는 날

모든 성인 대축일이 천상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룩한 영혼들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위령의 날은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신앙인은 오늘 육기의 육처럼 하느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19,16)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19,27) 친구들을 만난 후 육은 인간의 그럴 듯한 왜곡된 가설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제 더욱 하느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주 성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영혼을 기리고 끝이어 모든 죽은 영혼을 기억하고 아울러 불쌍한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나의 죽음도 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내 온 신경을 쏟아붓게 만드는 것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엔 우리 모두 그분을 뵙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의 유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의 차이일 뿐 나의 처지일 테니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서로 온갖 것을 주고받습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을 믿고 희망하는 교회는 이러한 관계가

세상을 떠난 이들과도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천상 교회와 지상 교회 그리고 연옥에 있는 이들이 하나임을 기억하며, 서로 기도해 주고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5,5)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희망이 실재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덕분에 고통은 한시적으로 지나가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락은 영원하여 언젠가는 모든 성인 대축일이 우리 각자가 포함되는 축일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위령의 날은 희망을 지니는 날이고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그런 희망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사랑의 체험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에 실천적으로 도전해 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나와 남의 인생의 슬픔을 좀 더 깊이 알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자비롭게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변에 평화를 이루고, 박해를 무릅쓰고, 모욕당하고 거짓으로 사악한 말을 들어도 즐거워하도록 참 행복에 도전하는 또 한 번의 출발점이 되는 위령의 날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성화 해설

복사 어린이가 든 십자가를 따라서 고인과 세상에 남겨진 이들이 함께 행렬합니다. 내리는 비가 죽음에 대한 슬픔을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앞선 이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마차를 장식한 화환과 사람들이 들고 있는 꽃은 생명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삶에는 분명 마침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을 둡니다. 선종한 분들을 기억하며 바치는 기도와 부활 신앙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죽을 고비를 회상하며



이인평 아우구스티노 | 시인

위령 성월이 오면 왠지 숙연해집니다. '삶을 생각하면 죽음이 보이고,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보인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에선 나도 모르게 초연해지곤 합니다. 어떤 슬픔을 마주한 것처럼 육신의 삶보다는 영혼의 의식이 눈뜨고 있는 것 같은 고요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느님께서 겨울에 이르러 당신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11월이 오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떠오릅니다. 벌써 40여 년 전이네요. 나이 서른을 맞이할 무렵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이 있었거든요. 막막했던 가난한 처지에서 오로지 문학을 하고 싶어 주경야독, 낮엔 일하고 밤엔 글을 읽고 썼던 시절이었지요.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작업하다 로프가 끊어져 4층 높이에서 타일이 깔린 1층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땅바닥으로 패대기쳐진 개구리같이 팔다리가 파르르 떨리면서 짹 뻗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삶이 죽음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질 찰나에 하느님의 천사가 추락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와서 제 머리를 받쳐 목숨을 살려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머리가 먼저 떨어졌더라면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취추 중 요추 2, 3, 4번 분쇄골절에다 좌측 발바닥뼈 분쇄골절이었습니다. '분쇄'라는 단어가 아직도 섬뜩합니다. 만약 요추의 분쇄로 인해 추공 사이로 흐르는 신경이 눌렸다면 평생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살아갈 뻔했지요. 담당 의사가 엄지발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했을 때 살짝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니, 제가 받은 은총이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얻은 목숨처럼 죽음에서 삶으로 단번에 옮겨진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달쯤 안정기를 거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의 수술 끝에 살아나서 이듬해 부활 대축일에 입원 중 세례를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보니 제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문학과 철학을 독학하며 살았던 의식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불안과 의구심과 반항적 편견에서 벗어나 한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의식들이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아주 간단한 깨우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숨이 진정으로 소중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빈 껍질 같은 것임을 인식한 바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해타산에 휘말리는 악순환의 질곡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내가 죽어 너희 모두를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그 사랑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한목숨이 의지가 되는 희망으로 세상을 좀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니까요. 참으로 저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해외의 굶주린 이웃에게 희망의 밥을 전해 주세요



“수녀님, 아이가 너무 배고파해요.
저는 괜찮으니 저희 아이에게 우유
라도 주세요.”

오늘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
스아바바에 위치한 미혼모 쉼터에
영양실조로 쓰러지기 직전의 엄마와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셀람(가명, 21세) 씨는 수

년 전 일자리를 찾아 아디스아바바로 와서 사랑하는 사람
을 만나 아이를 출산했지만, 강도를 만나 남편을 잃고 홀
로 아이를 키우며 노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힘으로 양육하느라 일을 할 수 없었던 셀람 씨는 하
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지만, 다행히 주변의 도
움으로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쉼터를 찾아 따뜻한
식사를 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셀람 씨처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젊은 여성들이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
다. 정식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워 관습적인 동거 형태로
가정을 꾸렸다가 남편을 사고로 잃거나 남편이 무책임하
게 떠나면서, 생계 능력이 취약한 미혼모와 아이들이 거리
로 내몰립니다. 내전이 끝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분
쟁의 후유증이 깊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점차 줄어

들어 거리 위의 미혼모들을 보호해 줄 안전망과 식량 지원
은 날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모잠비크 북부 카보델가도 지역에 사는 알만도(가
명, 10세)는 테러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알만도와 엄마는 먹을 것이 없어 야생풀을 갈아 죽을 끓여
먹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왔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또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배움의 기
회를 얻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알만도의 유일한 소원
은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곳곳에는 지금도 무력 분쟁과 식량 위
기로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재난, 기근으로 도움이 절실한 이웃
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긴급 식량
지원 사업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식
량 지원 덕분에 셀람 씨는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영양실조로 위기에 처했던 아이도 건강을 되찾았습
니다. 알만도 가족은 생계비 부담을 덜고, 어머니는 새로
운 일을 배우며 알만도도 다시 힘을 내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은 누군가에게
가장 절실했던 한 끼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굶주리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은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나눔에 동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11월 1일~12월 5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을 위해 씁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바보의나눔에서 발급합니다.
무통장 입금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 ① 우측 QR코드 입력(www.babo.or.kr/hand)
- ② 전화 신청: 02)727-2506 (재)바보의나눔



(재)바보의나눔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
서 보여주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정신
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전문 모금 및 배분 기관(특
례기부금단체)입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재)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도대체 사랑이란



방중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혼인성사 주례를 부탁받아 강론을 쓰게 되면 항상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결혼하는 이들의 사랑의 깊이를 사제로서 감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숭고한 것임을 어렵잡아 짐작하지만, 제자들과 신자분들을 사랑하지만, 오롯이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혼인 강론을 준비하는데, 본당 부임 시절 신앙학교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유치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고자 서둘러 찾아봤지만 지갑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울음소리는 거세졌습니다. 더 예쁘고 좋은 지갑을 사주겠다고 달래 봤지만 여전히 울음은 계속 됐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그 지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참이 지나 아이가 던져놓은 겹옷 주머니에서 지갑이 발견되었습니다. 색이 완전히 바랜 초라하고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갑을 받아 들고 웃었고, 저는 그 환한 미소를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저에게 사랑이란 뜨거운 감정도, 떨어지기 싫은 절절한 마음도, 두터운 신뢰도 아닙니다. 만약 사랑을 이러한 것들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변할 것이고 계산적으로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토록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자녀를 낳고 갈등을 감내하며 한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손때가 가득한 물건처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낡게 되며 값어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깨끗하고 세련된 외양도 높은 가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사랑이란,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오롯이 지켜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지갑을 잃어버리고 엉엉 울던 아이의 눈물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지갑을 사주겠다고 위로하던 제 마음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남녀는 서로를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반쪽으로, 혹은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일치하도록 만드신 것이며, 이를 통해 각자는 상대를 위한 도움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동시에 남성과 여성으로서 서로를 보완하는 것, 하느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 인간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남녀는 창조주의 일에 협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때로 상대를 나를 위한 존재로 여겨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지는 않는지요. 그럴 때는 다시금 사랑의 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각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며 그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하느님의 부르림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 나의 자리



이상윤 카타리나 | 청년 꾸르실료 체험자

당산동성당 성전은 우리 교구의 많은 본당 중에서도 올림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3층 성가대석에서 노래를 부르면 대성전 전체에 성가의 잔잔한 올림이 퍼져나갑니다. 이곳은 2~30대 내내 성가대 활동을 해온 제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입니다. 때로는 성가를 부르며 환희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를 드리던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자매님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성가대 활동을 해올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서 보니, 처음부터 청년 활동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엔 성가대를 하면서도 미사에 빠지기 일쑤였고, 대축일 특송 솔로 파트를 맡기로 해놓고 연습에 한 번도 가지 않아서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성가대 임원 언니가 보낸 장문의 문자를 받고 민망해진 저는 몇 주간 냉담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시험, 연애,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이 당시엔 미사를 드리고 성가를 부르는 것보다 우선순위였습니다.

성가대에 마음을 붙이기 시작한 건 일을 시작한 이십 대 중반쯤부터입니다. 출퇴근이 불규칙한 직장 탓에 늘 지쳐 있었고, 그럴 때마다 성가대 언니 오빠들은 주말이건 평일이건 달려와 제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친한 동생들이 생기면 그때 네가 챙겨줘.”라며 밥값도 술값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미사에 참석하고 성가를 부르면서도 신앙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서 성당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

작된 성가대 활동은 이십 대를 지나며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주일이면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성가대 단원들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성가대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 성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엔 성서모임 공부를 하며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아주 천천히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씀과 성당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30대 후반이 된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사를 빠질 때도 있고,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며 무거운 마음으로 고해소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모두를 사랑하는 것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의 저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지쳐있는 순간에도 성가대석에 올라 노래하고 미사를 드리면 사랑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을 압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서투르게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11

진술의 온도차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모진 박해를 당하는 조선의 가톨릭 신자들을 그린 그림.
(택희성 화백, 절두산 순교성지 제공)

1801년 신유박해 당시의 공초 기록인 《사학징의》에는 끔찍한 고문과 비명 소리는 음소거된 채 감정이 배제된 질문과 대답만 남아있습니다. 피가 튀고 뼈를 바수는 현장의 절박함과 숨가쁨이 없습니다.

진술 상황은 질문과 대답의 반복 횟수와 진술의 길이로 판단됩니다. 오간 문답의 횟수가 많을수록 고급 정보가 많고, 짧은 것에서는 건질 내용이 별로 없지요. 고급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진술은 대부분 배교자의 것입니다. 배교자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만났던 사람과 교회 조직의 세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술술 불었습니다. 묻기도 전에 대답하고, 묻지도 않은 것을 대답했습니다.

순교자의 진술은 짧고 단호해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믿었고, 앞으로 바꿀 마음도 없다, 그러니 신앙을 지켜 죽겠다.’로 압축됩니다. 이들은 세부적인 진술도 거부했습니다. 순교자들의 공초는 끝에 “만번 죽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다,”거나, “실로 바뀌서 고칠 마음이 없다.”는 표현으로 투식화 되어 반복됩니다. 이 말을 할 때쯤이면 그들의 다리 뼈는 이미 바스러졌고,

독한 고문으로 사람 형상이 아닌 상태였을 겁니다.

반면 배교자의 진술에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처음부터 엄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배교를 다짐하는 호소형이 있었고, 이랬다 저랬다 진술을 번복하다가 증거가 나와 거짓임이 들통나면 그제서야 인정하고, 다른 거짓말로 호도하는 번복형도 보입니다. 이미 형이 집행되어 죽은 사람을 끌어들이며 다른 사람의 연루를 막고, 교회 조직을 지키려한 양심형도 보입니다.

이기양의 아들 이충억의 공초 기록은 특별히 깁니다. 그는 1785년 명례방 집회 때 참석했고, 이튿날 형조로 가서 성상(聖像)을 돌려달라고 시위한 5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금부의 추궁에 애초에 사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땀지요. 정복혜의 진술을 근거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자, 이번에는 정복혜라는 여인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이에 두 사람을 대질시킵니다. 이충억은 큰 소리로 욕박지르며 정복혜를 다그쳤고, 정복혜는 그 서술에 놀려 주춤했지요. 아버지 이기양이 서학 문제로 먼저 용서를 받은 상태여서 그는 형평성의 원칙을 들어 방면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복혜는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고급 정보를 배교자의 입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조금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로 당시 교회의 조직과 운영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긴 혀로 신앙을 부정하고, 회를 고발하며, 관련자들을 끌어들이며 마침내 풀려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후련했을까요?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다 죽어간 순교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모든 형제자매를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 날인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성인들을 먼저 기념하고, 이들 날에는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여섯 번째 이관진 베드로 회장 기림 미사

이관진(베드로, 1927~2015) 회장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고마운 이웃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일평생을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행을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군중후원회 회장,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었고, 일선에서 은퇴하신 후 사재 50억을 출연해 환주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을 기념하는 2015년 주님 성탄 대축일에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매순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봉헌하신 이관진 회장을 기억하는 기림 미사에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때, 곳: 11월 15일(토)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집전: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최준웅(바르나바) 신부님 선종



우리 교구 소속 최준웅(바르나바) 신부님께서 지난 10월 20일(월)에 선종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1944년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하여 1973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명수대(현 흑석동), 미아동(현 길음동), 신당동·이문동·대방동·독산동성당, 해외연수(E.A.P.I), 동대문성당, 교포사목, 성북동·방배동·명일동성당, 9지구(현 제9 강동지구) 지구장, 겸) 천호동성당 겸) 월드와이드 메리지 엔카운터 대표, 겸) 월드와이드 메리지 엔카운터 서울협의회 대표, 수서동성당, 월드와이드 메리지 엔카운터 한국협의회에서 사목하시다가 2015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2025년 10월 22일(수)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11월 9일 오연희 마티아 신부(40세)
- 1954년 11월 5일 김피득 베드로 신부(47세)
- 1973년 11월 9일 왕송석 야고보 신부(32세)
- 2004년 11월 8일 김몽은 사도 요한 신부(77세)
- 2023년 11월 5일 도 미카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부(86세)

교구청 알림

항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11월 7일부터 매주(금)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2025년 정기 세미나 개최

주제: 교회는 청년의 희망인가? -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요한 6,68)
 때, 곳: 11월 18일(화) 오후 2시~5시, 서울대교구청 본관 5층 501호실 /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02/460-7641

2025 한국평단협 열린세미나 참가자 모집

주제: 평신도, 한국 교회의 시노달리타스를 묻다
 내용: 전국 평신도 설문조사 결과 발제 및 토론
 대상: 관심있는 모든 분 / 회비 없음
 때, 곳: 11월 8일(토) 14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 주관: 한국평단협 평신도사도직연구소
 문의(사전접수): 02/777-2013(홈페이지 www.clak.or.kr - 온라인 접수)

2026년 용문복사학교 신청안내

신청일: 11월 11일 11시 / 문의: 031)774-6422
 신청방법: 용문청소년수련장 홈페이지

	차수	평일(수, 목)	차수	주말(토, 주일)
초급	1차	1월 7일~8일	2차	1월 10일~11일
	3차	1월 21일~22일	4차	1월 24일~25일
	5차	1월 28일~29일	6차	1월 31일~2월 1일
	7차	2월 4일~5일	8차	2월 7일~8일
	9차	2월 11일~12일	10차	2월 21일~22일
중급	1차	2월 25일~26일	2차	2월 28일~3월 1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11월 3일 월례 미사는 사형수를 위한 위령 미사로 진행되어 명동가톨릭회관에서 미사가 없습니다.
 문의: 010-3732-5093

2025년 주교회의 노동사목소위원회 토론회

주제: '새로운 변화', AI와 노동문제
 대상: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
 때: 11월 10일(월)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2층 강당 205-2호(명동)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 노동사목소위원회

2025 요한복음 11월 월피정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 없음, 성경 지참)
 내용: 요한복음 특강 / 강: 조창수 신부
 때, 곳: 11월 7일(금)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2026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피정: 2월 20일~3월 2일(피정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제40차 세계 젊은이의 날

대상: 서울대교구 청소년 및 청년
 때: 11월 22일(토) 18시~20시3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신청: 본당 게시 포스터 및 서울대교구 인스타그램 QR / 내용: 공연 및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미사
 문의: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나눔의목사회 피정

대상: 사회복지사목에 관심있는 신자(선착순 38명)
 내용: 스테파노의 삶과 영성(성인의 삶에서 성장하는 이웃사랑 실천&나눔)
 때, 곳: 11월 22일(토)~23일(주일), 명상의집(우이동)
 회비: 15만원(개인 7만원, 본회 지원 8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알림참여)
 문의: 02/727-224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장소영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지영 개인전: 1전시실
 가톨릭사진가회 정기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 31일(금)~11월 9일(주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프로그램 안내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미사)
 대상: 낙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곳: 11월 11일(화) 오후 1시30분~4시30분, 교구 청별관 6층 소성당 / 문의(신청): 02/727-2350

'가난한 이의 희년, 김장 나눔 행사'

내용: 김장 담그기, 김장 나눔 행사(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눔입니다)
 때, 곳: 11월 15일(토) 9시, 교구청별관 주차장(명동)
 문의(후원): 02/727-2249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민족화해위원회

1) 제10회 2025 한반도평화나눔포럼

내용: 평화의 장인과 가톨릭 공동체
 때, 곳: 11월 14일(금) 오전 10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코스트홀 /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harepeace.net) 참조

2) 2025 평화의 바람 기행(4기) 참가자 모집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접경지역을 걸으며, 함께 기도해요! / 대상: 도보순례 가능한 누구나 40명(신청, 입금순)
 때: 11월 21일(금)~22일(토) 1박 2일 / 회비: 7만원
 곳: 임진강생태길, 북한군묘지, 유엔군화장장시설, 민족화해센터 / 문의: 02/753-0815

신청방법: 문자신청(010-4682-2412 링크발송)

3) 1487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1월 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분당': 평양교구 성천 분당

2025년 세계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

주제: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
대상: 자살유족 및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행사: 1부 미사 - 오승원 신부(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장) 2부 특강 - 권희동 바오로(청주대 명예교수)
때: 11월 15일(토) 14시~17시
곳: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3079.or.kr)
문의: 02)318-3079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심리강좌(윤제연 교수)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교구청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11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9695-1366
때, 곳: 11월 27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프란치스코 호소 단식 피정

주제: 비움에서 충만으로 / 문의: 010-8858-7814
때: 매월 세번째(금~주일) 2박3일 / 회비: 25만원
곳: 폰베틀알 프란치스코회(주최) 양평 수도원

음악과 함께하는 엠마오 피정

때, 곳: 11월 8일~9일,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주최) 본원(안동) / 대상: 40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8852-9817 황 수산나 수녀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1월 9일(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침묵 씬 피정(성령선교수녀회)

대상: 만 40세 이하 미혼 여성 / 회비: 4만5천원
때, 곳: 11월 7일(금) 20시~9일(주일) 10시, 본원(해화동) / 문의: 010-2691-4895 (문자 접수)

성경 치유 대피정

강사: 송봉모 신부, 한영임 회장
때: 11월 10일(월) 10시~17시 / 점심 무료제공
곳: 인천교구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중동역 5분 거리) /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9지구 성령기도회 낮 피정 / 문의: 010-8872-6147

때, 곳: 매월 첫째주(목) 13시~16시, 천호동성당 마리아관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1월 7일~9일, 2026년 1월 30일~2월 1일
엠마와 딸(미혼) 피정 11월 22일(토)~23일(주일)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1월 14일(수)~23일(금)

11월 도심 속에 하루 피정 '쉽'

안전지대-자원 찾기와 감사
때: 11월 22일(토) 10시~17시 / www.jiscen.or.kr
문의: 02)726-0700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강사: 조남구 신부(공도성당 주임) / 점심 무료 제공
때, 곳: 11월 19일(수), 갈현동성당(전철 3호선 연신내역 7번 출구) / 내용: 특별 상하이트위스트, 찬양치유 피정, 미사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내용: 성령을 따라(영광의 신비 3단)
때: 11월 9일(주일) 10시~16시(9시 미사 참석 가능)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전철 4호선 미아역)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그리스도인의 영적평화 일일 피정

주제: 그리스도인의 영적평화와 마음이 넓어지는길
때, 곳: 11월 15일(토) 10시~16시, 포교 성 베네딕도 서울 수녀원(상지 피정의 집) / 강사: 박재찬 신부
인원: 선착순 60명 / 문의: 010-7197-6985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원 무료 피정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려다.'
강사: 김성대·권태문 신부 / 미사: 양창우 신부
때, 곳: 11월 7일(금) 10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문의(접수): 02)929-2977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망덕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월 둘째주(토) 11월 8일 14시~18시, 구산성지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2025년 성령새신 전국치유 대피정 / 문의: 02)777-3211

강사: 브리지 맥켄나 수녀(말씀과 치유 은사)
미사: 이병호 주교, 전국교구담당 및 협력사제단
때, 곳: 11월 15일(토) 9시~17시30분,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대상: 모든 교우
주최: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2월 20일(토)~21일(주일)
3박4일	11월 27일(목)~30일(주일), 12월 11일(목)~14일(주일)
4박5일	12월 3일(수)~7일(주일)
8박9일	11월 5일~13일, 12월 26일~2026년 1월 3일
40일	12월 17일(수)~1월 25일(주일)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11월 7일 10시~15시30분
수행생을 위한 기도 피정	11월 13일(목) 10시~15시
가톨릭서간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11월 28일(금)~30일(주일)
요한묵시록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12월 10일(수)~13일(토)
송년 피정	12월 31일(수)~2026년 1월 1일(목) / 선착순 접수
단체 피정(자제·위탁) / 개인 피정 가능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11월 3일~12월 8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02)756-3473, 010-2565-3473

11월 3일(월)	소개강의, 세속정신 끊음 1	신동규 신부
11월 10일(월)	세속정신 끊어기 2	이병근 신부
11월 17일(월)	자기 자신을 알기	박현민 신부
11월 24일(월)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박규식 신부
12월 1일(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김경진 신부
12월 8일(월)	봉헌의 생활화	양창우 신부

성령안에서 치유회복 피정

때: 12월 13일(토)~14일(주일) 1박2일
곳: 아론의 집(의왕시) / 피정지도: 김성대 신부
회비: 12만원 / 문의(접수): 010-6366-4022
주최: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수원교구 찬양사도협)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2203-3053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성령미사·강의·안수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박희전 신부

11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철야기도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미사·안수, 중식 무료
문의: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1) 11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강사: 이사정 신부(전주교구)
때: 11월 8일(토) 12시~17시30분
2) 삼성산 화요 철야기도-탈리타를 일어나라
때: 10월 14일~12월 23일 매주(화) 21시30분~다음날 4시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자연순례 11월 24일~26일·11월 27일~29일·12월 5일~7일·12월 13일~15일·12월 19일~21일·2026년 1월 10일~12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2월 1일~3일·3월 1일~4일, 연말연시 12월 31일~1월 3일(한라산·해남·해돋이) /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제주순례 피정 12월 6일~8일·12월 12일~14일·2026년 1월 9일~11일·1월 23일~25일·2월 6일~8일·2월 27일~3월 1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해남·해돋이) 12월 31일~1월 3일,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월 15일~18일·1월 30일~2월 1일, 추자도 성지순례 3월 5일~8일·3월 12일~14일·3월 18일~21일
2026년 피정 접수 중 /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교육

고상·성모상·묵주 만들기(가톨릭묵공예)

접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스테인드글라스 교육(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 신촌·서초)

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 모임(가톨릭성서모임)

가톨릭성서모임 그룹형 성경통독
판관기·룻기, 사무엘기(상), 코린토
때, 곳: (월·화·수·주일) 오후 8시, 비대면
문의: 02)824-4363 / 홈페이지(www.biblemove.com) 접수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원서접수: 11월 21일(금) 17시까지
모집과정: 제1과정(예비과정)-철학·신학-62학점(수강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교회법-88학점
문의: 02)2164-6521(gsc.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년 전기 신입생 모집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 상담,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원서접수: 10월 27일(월)~11월 9일(주일)
면접: 11월 21일(금) / 문의: 02)2164-4176, 4787, 4173
홈페이지(https://ged.catholic.ac.kr) 참조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52기 3주차

때, 곳: 10월 20일(월) 19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목연구소 제29회 학술심포지엄

주제: 우리 시대의 청년과 교회, 그리고 2027 서울 WYD / 문의: 02)740-9758(samok@catholic.ac.kr)
때, 곳: 11월 15일(토) 10시~17시30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진리관 대강의실 / 주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목연구소·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서

내용: 진정한 자기를 이해하고 나의 정체성과 자신의 고유한 영성을 발견·견고하게 하여 프란치스칸 영성을 살게함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때: 11월 28일(금)·29일(토) 9시30분~17시30분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회비: 15만원

제27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pbccamp.com)

미국 (3주)	2026년 1월 12일~2월 1일 / UCLA·UC버클리·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탐방
사이판 (4주)	2026년 1월 10일~2월 4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 수업, 마나기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모집

전교가르멜 수녀회 재속회원 모집 / 문의: 010-8271-1852
대상: 기도와 교회적 친교의 삶을 원하는 분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8932-0910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1곡

재속맨발 가르멜회 회원 모집(알베르토공동체)

대상: 만 55세 이하 세례 전전자
모임: 매월 넷째주(주일) / 문의: 010-7673-5013

베아투스 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매주(목) 18시, 전철 3호선 동국대입구역 2번 출구(장충동) / 문의: 010-3709-7956
테너·베이스 각 0명, 시니어 환영

성 김대건 성가단 하반기 정기 단원 모집

대상: 음악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만50세 미만)
때: 매주(수) 19시30분 / 문의: 010-2272-0180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2025년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때: 11월 15일 14시 / 대상: 1980년 이후 출생자
홈페이지(https://www.catholic-choir.or.kr) 참조
문의: 010-3211-5195 (문자)

제13기 청년해외봉사단 모집

때, 곳: 2026년 1월 24일(토) 19시 출발~2월 1일(주일) 7시 도착, 라오스(비엔티안군)
이메일: 1004catholic@naver.com
문의(접수): 02)355-3336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대상: 봉사에 관심 있는 현재 초·중·고3
내용: 연탄나눔, 농촌체험, 자선공연, 사회복지 시설방문 등 / 홈페이지: www.stvin.or.kr
문의: 02)926-3440, 010-6880-9605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폴로와 성모신심 미사

때: 둘째주(토) 11월 8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10-7142-0513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 미사

내용: 연평과 가정을 위한 기도과 미사 / 02)3142-4434
때, 곳: 11월 7일(금) 11시20분, 절두산순교성지

군중후원회 월례 미사·특강

특강: 마호성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11월 3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원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곡개성지 내)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곳: 11월 5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11월은 성서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군중교구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

때, 곳: 11월 5일(수) 10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집전: 군중교구장 서상범 주교 외 군중사제단 참석: 전(全) 지역 신자 장병 및 민간 신자, 유가족
문의: 02)749-1921

안내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제공기관
개인·가족상담, 모래놀이 상담 / 문의: 010-2199-3439

서울가톨릭싱어즈 정기연주회 / 문의: 010-4032-7530

때, 곳: 11월 15일(토) 19시30분, 도림동성당
곡목: 모차르트 대관식미사 등 / 전석 무료

가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 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가리따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임영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수녀회)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 심리 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바오로딸 북콘서트 '시편에 설레다'

성서주년을 시작하며 듣는 도서 '시편에 설레다' 저자 강연 / 강의: 임미숙 수녀
때, 곳: 11월 22일(토) 11시, 알베리오네센터
회비 없음 / 문의(접수): 010-7286-7724 (문자만 가능)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일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창단40년 기념 연주회

때, 곳: 11월 7일(금) 20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전석 무료 / 문의: 010-7242-6027 (문자만 가능)
1986년 오랜 교회음악의 전통인 소년합창의 맥을 잇고 자 서울대교구 敎友인원 알로이시오 신부가 창단한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이 40년을 맞아 기념 연주회를 펼칩니다 '거룩한 음악'이라는 무지카사크라(Musica Sacra)의 뜻처럼 소년 교우의 순수한 목소리로 빛어낼 특별한 음악의 밤에 공동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s://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관계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8146-7655

직원모집

주한교황청대사관 직원 모집

분야: 청소 및 세탁 1명 / 문의: 010-8232-4102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신학대학) 직원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 8

청년문화공간JU 직원 모집

분야: 대관 및 행정 / 문의: 02)338-7830
11월 16일(주일)까지 청년문화공간JU 홈페이지 게시판사항 참조하여 접수/11월 중 면접 예정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매월 첫째주(주일) 14시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혜화동)	010-4344-1997 권정대 수사 신부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람의 딸회	11월 22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	010-8867-3217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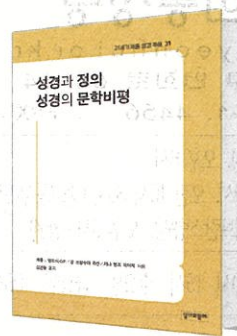


신간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

김영선 지음
바오로딸 | 192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이 책에는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 곧 나의 존재 이유와 고유한 소명을 찾아가는 여정이 담겨 있다. 바오로딸 혜화나무 목욕탕강사: 김영선 수녀에서 진행된 영성 강의를 바탕으로 한 이 묵상서는, '나의 이름은', '참으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선택과 결정',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진짜 '나'를 만나게 한다.



신간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31 성경과 정의 성경의 문학비평

캐롤 J. 뎀프시 O.P., 장 프랑수아 라신 등 지음
성서와함께 | 204쪽 | 2만원
문의: 02)822-0125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는 가톨릭교회의 성경 해석 전통을 존중하며 집필된 한국어판 최신 성경 주해서다. 31권 《성경과 정의·성경의 문학비평》은 성경이 사회 정의와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탐구하며, 정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한다. '결을 따라'와 '결을 거슬러' 읽기를 통해 성경이 오늘의 불의와 억압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성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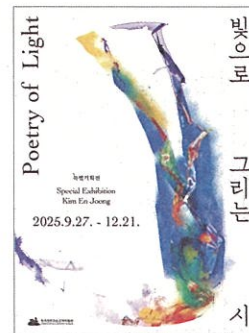


음악회

대건챔버콰이어 27회 정기연주회

때, 곳: 11월 3일 19시30분, 영산아트홀
입장권: 전석 3만원
문의(예약): 010-6356-3347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50명 20% 할인

대건챔버콰이어가 제27회 정기연주회 <잊혀진 거장, Zelenka 연주 시리즈 7 - Requiem & Missa Paschalis>를 연다. 30년간 가톨릭 교회음악의 전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대건챔버콰이어는, '가톨릭의 바흐'로 불리는 젤렌카의 작품을 국내 초연으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바로크 트럼펫과 호른 등 시대악기들의 연주를 통해 당시의 사운드를 재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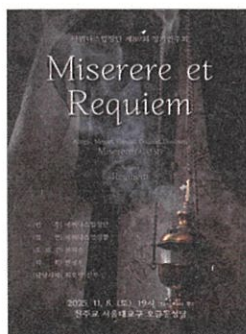


전시

특별기획전 빛으로 그리는 시

때: 9월 27일(토)~12월 21일(주일)
곳: 절두산 순교성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문의: 02)3142-4504

절두산 순교성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으로 김인중 신부 초대전 <빛으로 그리는 시>를 열었다.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빛이 춤추는 듯, 투명한 색채로 시를 수놓은 듯한 김인중 신부의 작품을 만나 마음에 한 조각 빛을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마련한 전시이다. 전시 기간 동안 글라스아트 체험프로그램과 특강 등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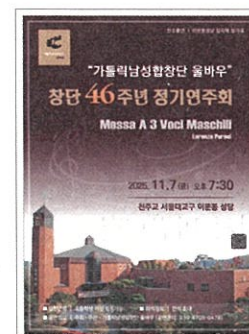


음악회

아퀴나스 합창단 제89회 정기연주회

때, 곳: 11월 8일(토) 19시, 오금동성당
문의: 010-5397-7387 / 전석 무료

위령 성월을 맞이하여 오금동성당에서 <Miserere et Requiem> 연주회가 열린다. 이번 연주는 살리에리의 '레퀴엠'과 더불어 알레그리, 모차르트, 헨델, 구노, 도니제티 등 작곡가별 '미세레레'를 선보인다. 특히 같은 내용을 다양한 작곡가의 해석으로 비교하며, 음악적 특성과 감성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음악회

가톨릭남성합창단 올바우 창단 46주년 정기연주회

때, 곳: 11월 7일(금) 19시30분, 이문동성당
문의: 010-8705-0478 / 전석 초대

가톨릭남성합창단 올바우(담당사제: 김종수 신부)가 창단 46주년을 맞아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는 위령 성월을 기념하며 성공용 유스티노 지휘로 진행되며, Lorenzo Perosi의 <Messa a 3 voci Maschili (Messa Cerviana, 1952)>를 비롯해 Ave Maria 등 다수의 성음악이 연주될 예정이다. 이문동성당 칼리체 성가대가 찬조 출연한다.



제2시대문·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상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김 현 (안토니오)

주 임 신 부 : 최장민 (도미니코)

부주임신부 : 백종원 (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 (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복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미사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5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오후 6시 (창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성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미사 후

● 위령의 날 미사

11월 1일(토) 오후 18시미사와 11월 2일(주일)
모든 미사는 위령의 날을 맞아 죽은 이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 미사 후에 연도가 있습니다.

※ 11월 2일(주일) 10시30분미사는 없습니다.

● 유아세례 : 11월 2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예비신자를 초대합니다.

- 추가모집 : 11월 19일(수) 까지
- 대상 : 예비신자, 외곽교우, 첫영성체 준비자
- 교리시간 : 주일반 : 오전 9시~10시 / 304호
수요반 : 오후 7시~8시 / 304호
- 세례식 : 2026년 4월 26일(주일)
- ※ 예비신자 인도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연령회 미사

- 일시 : 11월 4일(화) 오전 10시
- ※ 매월 첫째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수험생 축복 미사

- 일시 : 11월 12일(화) 오후 7시 / 소성전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11월 18일(화) 오전 10시
-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성시간

- 일시 : 11월 6일(목) 오전 10시미사 후

● 병자영성체

- 일시 :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출발
- ※ 병자영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님 또는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구반장 회합

- 일시 : 11월 9일(주일) 12시 / 소성전

● 남성을드레아

- 일시 : 11월 16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성소후원회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8일(화) / 오전 7시 30분 출발(성당미당)
- 장소 : 양주순교자성지

● 성물방 봉사자 모집

- 봉사시간 :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 문화학교(주일학교) 학생 모집

-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쿨렐레, 미술, 한글캘리그래피
- 수업기간 : 12월 6일(토) ~ 2026년 2월 28일(토)
매주 토요일 수업
- 신청 : 문화학교 오픈채팅방에 신청
- 재수강 : 11월 1일 ~ 11월 9일
- 신규수강 : 11월 10일 ~ 11월 23일
- 문의 : 최윤희 아녜스 (010-4538-5665)



● 2026년 각 단체 예산신청서 제출

- 기간 : 11월 30일(주일)까지
- 제출처 : 사무실
- 신청서는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양식명(엑셀파일) : 2026년 단체예산신청서 양식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10. 26)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15	763 (37.9%)	715 (35.5%)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감사헌금 (10월 20일 ~ 10월 26일)

이현수	일십만원	곽선모	오천원
박옥남	오만원	박영희	삼십만원
함영동	일만원	김은주 가정	일십만원
김경식 가정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30주일)

교 무 금	 8,132,000원
주일헌금	 6,024,000원

입당	227	봉헌	517,340	성체	462,436,228	파견	27
----	-----	----	---------	----	-------------	----	----



나 는 주 님 앞 에서 걸 어 거 리 라 살아 있 는 이 들 의 땅 에 서 걸 으 리 - 라